[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D-100일 수험생 격려문]

수능100일, 그동안의 노력이 큰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

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, 그리고 존경하는 선생님과 학부모님께

어느덧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백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지난 12년, 교실과 도서관, 그리고 밤늦은 책상 앞에서 흘린 땀과 노력이 이제 결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. 그 시간을 걸어온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먼저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.

남은 백 일은 그동안 심어 온 나무에 마지막 거름을 주는 시간입니다. 조급함에 새 가지를 무리하게 뻗기보다, 뿌리내린 것들을 차분히 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. 흔들리는 날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아도 좋습니다.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어가는 걸음이 결국 더 멀리, 더 단단하게 나아갑니다. 무엇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. 잘 자고 잘 먹는 것 또한 공부의 일부입니다.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듯, 여러분의 노력도 이제 결실을 향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. 남은 100일, 하루하루를 소중히 채워 나가며 스스로를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이 자리를 빌려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아이들의 마음과 손끝을 살펴주신 선생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. 남은 기간에도 학생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또한, 자녀의 등 뒤에서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 오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. 지켜보는 이의 마음이 때로는 당사자보다 더 무겁다는 것을,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. 남은 기간 자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수험생 여러분,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해 왔습니다. 남은 시간 동안 건강을 살피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면, 그 성실함이 반드시 값진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. 우리 교육청은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,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.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8월 11일

충청남도교육감 이병도